

“폴스포츠, 예술이 담긴 무대로 봐 달라”



고유나 선수가 지난달 27일 열린 '2019 한국 폴스포츠 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폴스포츠협회

“폴스포츠는 한 편의 연극같은 경연 아티스틱폴, 기술보다 예술성 중요 국내에 알리고 인식도 바꾸고 싶어”



고유나

“폴스포츠를 아시나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이색 대회가 열렸다. '2019 한국 폴스포츠 선수권대회'가 그것이다. 폴스포츠는 수직 기둥(폴)을 사용해 유연성과 근력으로 오르내리기·스핀·거꾸로 서기 등을 조합한 스포츠다. 이번 대회는 10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대회였다. 6세부터 60세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선수 22명이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폴스포츠, 아티스틱폴 등 2가지 종목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폴스포츠에서는 3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아티스틱폴에서는 아쉽게도 국가대표를 뽑지 못했다.
 아티스틱폴(artistic pole) 부문 여성 시니어 부문(만 18세 이상)에서 눈길을 끈 선수가 있었다. 주인공은 19세의 고유나 선수. 그는 3년 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던 중 폴스포츠에 매력을 느껴 시작했다. 폴스포츠의 어떤 매력이 고유나를 끌어들이었을까. 그는 “폴스포츠는 흔치 않은 종목이다. 무대에 서면 한 편의 연극같이 관객에게 경연을 보여줄 수 있어 폴스포

츠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아티스틱폴은 다른 폴 종목에 비해 규칙과 규율이 자유롭다. 때문에 선수의 개성이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다. 고유나 역시 준비한 부분이 남달랐다. 그는 “아티스틱폴은 다른 종목에 비해 기술보다는 예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어 경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고유나는 인상적인 경연을 펼쳐며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제심판들이 평가한 점수는 54.33점. 아티스틱폴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다. 최고점이었지만 그는 “원래 목표였던 60~70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리허설에 비해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실수가 있었다”며 아쉬워했다.
 고유나가 이 대회에서 기록한 점수는 세계랭킹 22위에 해당한다. 세계선수권대회에는 각 연령 범주별로 10인에 들어야 출전할 수 있다. 캐나다 세계선수권대회에는 출전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는 “10월에 열리는 캐나다 선수권에 출전하지 못하게 돼 아쉽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 국내 대회에 꾸준히 참가해 실력을 키워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고유나는 “국내에 폴스포츠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폴스포츠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폴스포츠를 하나의 예술이 담긴 무대로 봐주셨으면 한다”며 작은 바람을 전했다. 김준희 객원기자 kimjh8370@naver.com

‘당구+골프’ 게이트볼 젊은세대에게도 인기

최근 게이트볼이 중·장년층을 넘어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게이트볼의 활성화를 이끄는 대한게이트볼협회의 직원 한동욱 씨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게이트볼은 스틱으로 공을 쳐서 세 개의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시킨 뒤 ‘골프’에 맞추는 경기다. 골프와 당구의 특징을 조합한 게임으로 스틱을 잡는 법은 골프, 공을 쳐서 다른 공을 맞추는 것은 당구와 비슷하다. 경기 시간은 30분이며 1~10번의 타수에 따라 양 팀이 번갈아공을 친다.
 출발선에서 시작한 경기는 제1게이트부터 제3게이트를 거쳐 골퍼에서 끝난다. 점수는 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1점, 골퍼를 맞출 경우 추가로 2점이 더해진다. 한 팀은 선수당 최대 5점씩 총 25점을 얻을 수 있다. 한동욱 씨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협회를 방문해 회원 신청을 하면 기존 회원들과 게임을 할 수 있다”며 간단한 참여 방법을 소개했다.
 게이트볼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그는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진입장벽이다. 무리한 신체 능력을 요구하지 않기에 초보자도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게이트볼의 4050세대 유입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2030세대의 유입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동욱 씨는 “젊은 세대에게는 아직 인지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에겐 친숙히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재미있는 SNS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안혜린 명예기자(한국외대 영어학과) herin100@naver.com

‘폴 위의 토르’ 최성혁 “폴스포츠는 젊은 날의 마지막 운동”

시니어 남자부 엘리트 부문 우승

7월 27일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9 한국 폴스포츠 선수권대회’는 국제폴스포츠연맹(IPSF)이 주관하고 한국폴스포츠협회가 주최했다.
 이날 폴스포츠 엘리트 부문 시니어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주인공은 부산에 거주하는 네 아이의 아버지이자 크로스핏 및 폴스포츠 전문강사인 최성혁(37) 씨였다. 좌측 얼굴에 붉은 두 줄을 그려, 어벤져스의 토

르를 연상케 하는 강렬한 분장과 눈빛으로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훑친 그를 대회 종료 후 만났다.
 화려함 뒤에 감춰진 고된 순간도 있었다. 과거 보디빌딩선수로 활동했던 그는 “폴스포츠에 입문할 당시 낙하 등 난이도가 높은 동작을 실행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 초기에는 기술숙달이 서툴렀기에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며 아찔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의 어려웠던 입문기는 특유의 거칠고 아름다운 퍼포먼스의 밑거

름이 될 수 있었다.
 최씨는 폴스포츠에 도전하거나 도전을 고려하는 남성들에게 “언제든지 문은 활짝 열려 있다. 폴스포츠를 대하는 충분한 마음가짐만 기반이 된다면, 어떤 스포츠보다 매력적인 운동이 될 것이다”라며 독려했다.
 끝으로 그는 “폴스포츠는 아직 젊은 나이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며 폴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드러냈다. 이진희 명예기자(수원대 체육학과) endll0051@naver.com



'2019 한국 폴스포츠 선수권대회'에서 엘리트 부문 시니어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최성혁 씨. 사진제공 | 청춘스포츠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02558호(2018.06.12) (COM-2018-06-28146)

“나이 들수록 암에 걸리기는 쉬운데 보험 가입은 힘들어지네요.”

위암 재발확률 20.5%

서울 백암원(2017) 대상: 1996~2002 위암 수술환자 1,299명

“암을 한번 앓고 나니까 더 불안해요.”

“일반인 대비, 고열암 환자 전립선암 발병률 1.45배”

암 발병률 급증 50세 이후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암학회(2017) 대상: 2006~2015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환자 20세 이상 남자]

“작은 병이 큰 병 될까봐 무서워요.”

암보험 걱정!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이 답이다 (갱신형)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장액지급

080-608-1010

•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 보장(가입 2년 이내 50%))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거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입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월별계약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A생명보험 주식회사

스탠드 에어컨 에어컨 상단으로 시 무료증정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